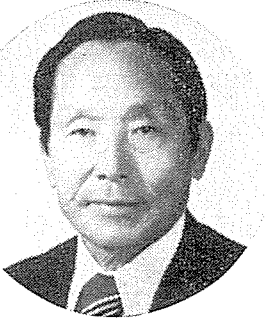


# 科學韓國의 跳躍을 爲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 長 金 允 基

우리나라는 現在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통해 크 나큰 發展을 하여 왔다.

政府는 이 高度經濟成長을 基調로 第4次 經濟開發 5個 年 計劃을 樹立했다.

成長, 能率, 衡平의 理念下에 自立經濟와 社會開發, 技術과 能率의 革新的 向上을 그 基本目標로 하고 있다. 이 計劃의 執行課程에서는 內資動員과 輸出增大가 主要 課題로 擡頭된다고 한다.

따라서 與件의 變動에 따라 連動計劃轉성으로 對處해 나갈 方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計劃에 발맞추어 나갈 만한 準備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現在 科學技術振興의 基盤을 構築하여 科學技術의 創出 및 應用開發로서 經濟發展을 支援하는 새로운 歷史的 課程을 形成해 가고 있다.

各 研究所의 設置와 大學研究機關을 통한 새技術導入, 技術의 革新, 科學頭腦의 養成에 不斷히 努力하고 있다.

이 모두가 經濟開發에 直結되는 原動力을 얻기 爲해서 이며 이 原動力을 活性化 시키자면 무엇보다도 技術人力 開發이 時急한 것이다.

技術人力 開發을 爲해서 科技處는 이미 3大目標을 設定해 놓고 있다.

첫째가 高級科學頭腦를 國家的인 次元에서 開發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企業이 必要로 하는 技術者技能士의 良質化를 爲한 科學技術 教科課程을 改編하고 셋째 技能人을 職業教育이나 訓練을 통해 育成한다는 것이다.

科學技術의 暢達振興은 어느 特定機關이나 特定人만의 受任事項은 아니다. 그 性格이나 効用성에 있어 國家的인 次元에서 凡國家的으로 展開해 나가야할 課題인 것이다. 지금 全國民의 科學化를 指向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얼마前부터 政府(科技處)는 科學財團의 設立을 樹立 推進中에 있다.

우리 科學技術人도 眞작부터 이 科學財團 設立案을 檢討하고 그 必要性을 主唱한바 있다 科學과 技術이 開發되자면 여기에는 많은 投資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꾸준한 努力이 있어야 한다. 投資에 비해 너무 성급한 期待를 하는 것은 無理이다 基礎科學을 다지고 自己專門에서 研究開發하는 課程이 있어야만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財政的 支援이 必要한 것이다. 研究와 革新과 開發을 創出하자면 能力을 培養하고 연마할 수 있는 教育의 質的 向上을 이뤄야 함은 勿論, 研究 活動의 組織的인 育成體制를 確立해야 비로서 頭腦는 高級化되고 科學頭腦의 活用이 實効를 거두게 된다.

이같은 뒷받침을 確固히 하기 爲한것이 바로 科學財團 設立의 趣旨요 目的이다. 先進國의 科學技術 開發을 爲한 75年度 國家別 投資 比率을 살펴보면(G.N.P) 美國은 2.7%, 蘇聯

# 國立科學財團 設立 시급

은 4%, 英國은 2.8%, 西獨은 2.4%, 日本은 2%, 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0.4%에 不過한 實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研究活動 狀況은 어떤가 大學을 中心으로한 基礎研究活動은 質, 量面에서 微弱하기 그지 없다. '73年 現在 不足되는 研究費는 産業技術 分野 120億원, 基礎研究 分野 3億餘원으로 集計되고 있다.

이웃 日本의 大學研究費는 2,886億엔으로(72年) 나타나고 있다. 人口 1,000名當 研究員 比는 美國이 2.6人, 朝鮮이 3.1人, 英國이 1.8人, 日本이 1.9人, 인데 우리나라는 0.2人이다. 自然科學系(碩士以上)의 年間 輩出人員은 美國이 52,900名, 英國이 8,000名, 日本이 11,700名인데 우리나라는 865名이다.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이들 적은 數의 高級科學頭腦에게 나마 주어지는 研究費가 外國에 比較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貧弱한 科學技術 研究費 投資로서는 先進을 追求하기 보다 오히려 뒤 떨어 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이 時點에서 科學技術暢達振興을 뒷받침하는 科學財團 設立의 推進은 매우 적절한 着眼이라고 하겠다.

지난해 科技總聯 傘下 103個 순수학회의 活動實績을 보면 學術發表會 234回, 論文發表 2,643編, 學會誌發刊 306回(298,000卷)이다.

이들 學會에 對한 支援은 科技處支援 900萬원, 產學協同財團 支援 2,000萬원(人文, 自然 合해서)에 不過하다. 平均한다면 한學會에 配分된 年間 支援額은 95,000원 程度로 풀이된다 學會誌 1回 發刊費는 30餘萬원 인데 比해 學會支援은 現實과 너무도 큰 距離感을 갖게 한다

科學技術의 自立化의 지름길은 綜合的인 風土造成에 있다 하겠다 政府가 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서 밝힌 科學技術 支援 G.N.P 1%가 速히 이루어져야 겠다. 그리고 이와 併行해서 科學財團의 設立은 하루속히 實現되어야 할 主要 課題라고 아니할수 없다.

科學財團 設立은 지난해 第3次 韓·美 科學技術協力 常設共同委員會에서 合意를 보아 이미 設立의 妥當性 調查도 끝 났다고 한다.

6月 4日 美國側 調查團長 Dr. 존 발드스바일러 氏는 「經濟發展을 爲해서 研究와 訓練의 水準이 向上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韓國에는 科學財團을 設立, 研究環境을 造成할 必要性이 크다」고 強調했었다. 그리고 投資規模를 內資 120억 美國側 支援 100億, 計 220億원 규모의 科學財團 設立에 合意했다고 한다. 勿論 內資 120億원의 調達이 그렇게 간단한 問題는 아니다. 따라서 科學財團 設立은 政府가 主軸이 되어야 함은 勿論이나 企業人의 積極的인 參與를 비롯해서 國民各者가 모두 協調해야 할 重要課題라고 할 것이다.

이 財團의 設立은 科學韓國의 跳躍을 爲한 것이요. 研究活動의 새로운 轉機가 될 것이라고 確信하기 때문이다.

內資動員이 早速히 이루어 질때 美國의 好意의 協調가 이루어 진다는 것도 留意해야할 問題이나 이에 앞서 政府와 國民이 一致團結하여 科學技術 振興의 風土造成과 技術 革新을 公고히 하기 爲해 自助 自立의 새마을 精神과 民族의 矜持를 보여 주자.